

일본 중견 면방의 신방적 시대로의 발전상 (9)

신나이가이멘의 사례 - 고객과의 원료 특화 소재

공동 개발 가속

신나이가이멘(新内外綿)에서는 정번수로 되어 있는 실도 다른 회사들이 보기에는 차별화 실로 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신나이가이멘도 미래 면 방적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예일 것이다. 방적 기술의 특화뿐만이 아니라 원료로부터의 특화 소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신나이가이멘이 첫째 개발 소재로서 2004년 4월에 발표한 것은 연사(撚絲)를 생산하는 공장과 공동으로 개발한 히노키티올을 이겨 넣은 레이온과 면의 혼방사 니트 소재 “히노키오”이다. 또한 시키보와 컬래버레이트(collaborate) 소재로서 사탕수수 섬유의 방적에 관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연달아 원료에 중점을 둔 원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신나이가이멘은 중국에 있는 생산 거점도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다. 방적 분야만을 보면 중국에는 산둥성(山東省), 창저우(常州), Ningbo(寧波)의 세 지역에 각기 협력 공장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 수출한 원사를 가공하여 되들여오는 거래 방식은 이색연사(grandrelle yarn)를 중심으로 연간 200t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에서 원사가 생산되는 경우에도 원료 문제는 여전히 중요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중국의 신강면(新疆綿)으로 뽑은 원사 “카레즈”도 중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카레즈는 일본에서 방적하였는데, 중국으로부터

신강면을 수입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 중국에서 실까지 뽑기로 되었다. 그와 같은 경영의 유연한 자세도 강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신나이가이멘의 원사 개발 콘셉에는 형상 변화사(形狀變化絲) 시리즈 “오모시로 안(面白 yarn : 흥미로운 실)”, 혼상(混狀) 변화사 시리즈 “오코노미 안(嗜好에 맞춘 실)”, 색상(色狀) 변화사 시리즈 “기레이 안(キレイ yarn : 깨끗하고 아름다운 실)”의 세 가지 시리즈로 분류하여, 소재로부터 중요시 하여 신소재를 개발하려는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요즘에는 산지 내의 중간 도매상이나 니터(knitter), 제직 업자 등이 공동으로 신소재를 개발하기를 원하는 신청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말에서도 소재를 중요시 하는 고객이 늘고 있음을 증명한다.

독자적인 단납기 소로트 생산 체제인 “하야이 안(早い yarn)” 시스템이나 세 가지 개발 콘셉에서 생겨난 특수 형상 변화사 “후시기 안(不思議 yarn : 이상하게 생긴 실)” 등과 함께 “안(yarn)” 시리즈로서 소프트이든, 하드이든 여러 가지 소재를 개발해 낼 것이다.

마켓 인(market-in)보다는 어느 정도 프로덕트 아웃(product-out)의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에 맞게 상품을 적시에 개발할 수 있는지 불안도 있다. 그러나 공장이 고객에게 신상품 개발을 중요시 하게 되면, 아직도 얼마든지 좋은 소재를 찾으려는 고객을 수없이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9번에 걸친 연재를 끝내면서 모두 다른 중견 면방 회사 중에서, 서서히 일본에서도 살아남은 미래의 방적 업자들이 앞길을 찾아내고 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 모두 평탄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도 길이 험할 텐데 이 험한 길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이들 역경을 극복한 방적이
세계에서도 유명한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